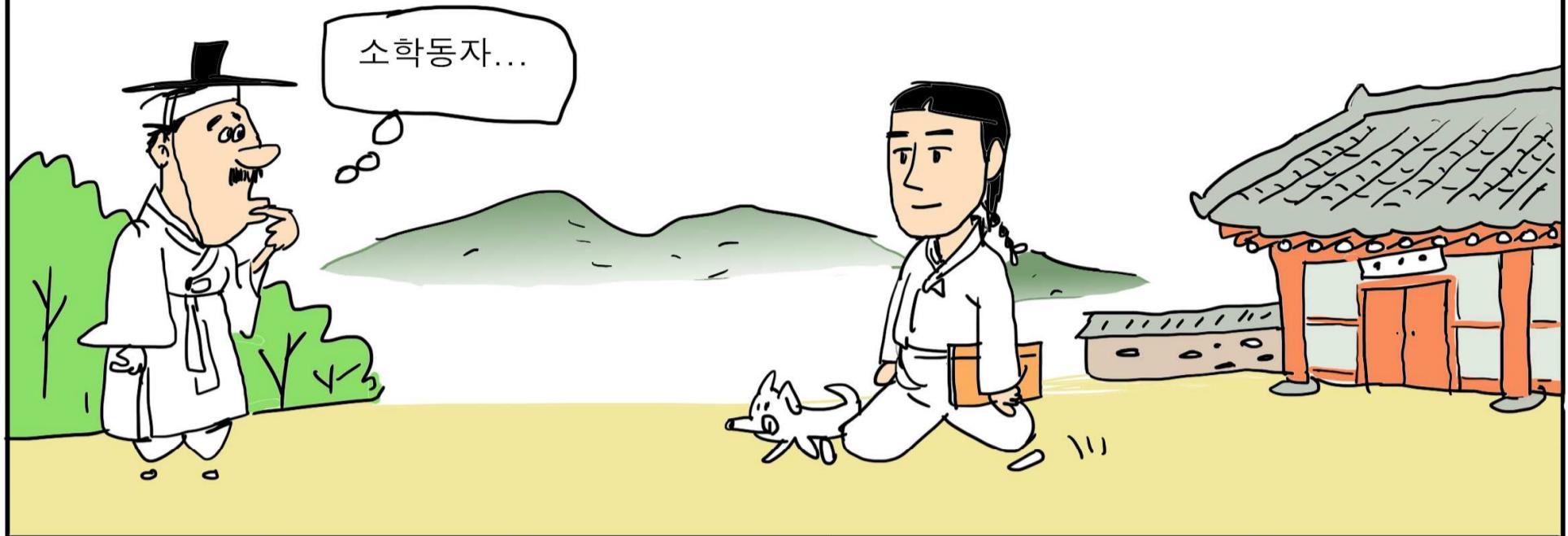


4. 어긋남이 없는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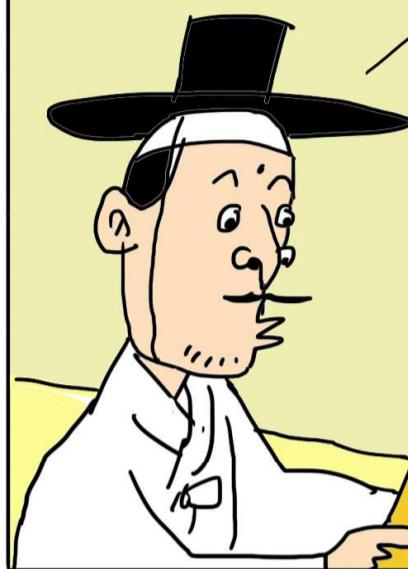


난 너희들과 급이 다르걸랑. 진사시에 합격했으니 성균관에 올라가서 공부하여 과거시험을 치룰 자격이 있지, 어험!



난 소학만 들이 파야지.

선을 보면 따르고
의를 보면 행하라.



안색을 엄숙히 하면 마음이 경건해지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옷은 제대로 갖추어 입어야 한다.



그가 퇴계를 보더니 놀랐다.

신기하네, 언행이 마치 소학의 내용을 그대로 읊긴 듯 하단말이야!



소학을 얼마나 공부했길레 행동이 저리도 방정 할까?



소학이요?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공부하셨수?



하하, 전 소학이란 책을 보지도 못했어요.

엥? 그런데 어찌 언행이 소학에 나온 내용과 촌치도 어긋남이 없나요?

어려서부터 집안 어르신들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따르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오호라!



소학을 배운 바도 없는데 소학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다니.....

매사에 정신차리고 바른 자세로 살려고 하니 그 점이 바로 소학의 내용과 일치했나 봅니다.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박승진은 퇴계를 보면 볼수록 놀라고 감탄하였다

정암 조광조 선생 이후 살아있는 조선의 소학동자로다!

